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원조 명성 널리 인정받아

승일푸드시스템, 창업-임실치즈피자 부문 전문기업 선정

(유)승일푸드시스템(김영일 대표)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창업-임실치즈피자' 부문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임실치즈피자체인본부 (유)승일푸드시스템은 전통적인 치즈의 맛을 바탕으로 1998년 임실치즈피자를 탄생시키고 20년 전통을 이어가며 피자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이같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실치즈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주민들이 조화를 결성하고 대형 살비의 공장까지 마련해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치즈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유 대신에 우유로 치즈를 만들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연구 개발한 노력의 결과다.

임실치즈는 지난 1967년 빨가에서 임실생당으로 부임한 지정환 신부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치즈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피자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치즈의 수요 증가로 임실치즈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승일푸드시스템 김영일 대표는 "20년 동안 승일



푸드시스템은 정통 자연치즈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연구 개발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원조로서 그

명성 또한 인정받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독거노인 생일케이크 전달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연자)은 17일 생일을 맞이한 풍남동 소재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일케이크와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날 생일케이크 전달은 '독거노인 생일케이크 지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바라기봉사단은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등 관내 40가구가 결연해 생일마다 각 가정을 방문, 축하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가족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풍남동 해바라기봉사단 최수자 회장은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해바라기봉사단이 함께 축하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는 독거노인 뿐 아니라 폐지 수거 어르신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이웃과 함께 하는 해바라기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역전파출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주특진경찰서(서장 박성규) 역전파출소는 17일 신화기를 맞아 녹색어린이회원과 공동으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으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지켜내는데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또한 학교 관계자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진담회를 갖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장근 파출소장은 "신화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보호활동 전개로 등하굣길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도심 흥기난동 범인 집은 임권호 대위 전북경찰청장 표창

도심에서 흥기난동을 벌인 30대를 추격해 제압한 군 장교가 전북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17일 중요 범인을 검거한 임권호 대위에게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 대위는 지난 12일 대낮 도심에서 흥기를 휘두르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도주한 오씨(31)를 추격해 붙잡은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오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께 전주 완산구 전동 전주상공회의소 앞길에서 한 여성운전자를 흥기로 위협한 뒤 객사 일대를 배회하다 인근 미용실에 들어가 여주인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 중인 임 대위는 이날 휴일을 맞아 이발을 하러 나간 길에 범치 현장을 목격하고 오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인진수 기자



전주 덕진구 자원위생과, 직원 친절·청렴교육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자원위생과에서는 지난 16일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36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인 민원인 응대 태도와 정보 보호, 특히 보이지 않는 민원 창구인 전화 예절 교육 등 다양한 색선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은 "민원처리에 있어 친절·공손한 자세는 기본이다"며 "민원 업무와 관련해 항상 학습하는 자세로 임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예향장학재단, 2016년 장학생 51명 선발

전북예향장학재단(이사장 임병찬)은 17일 2016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 5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전북예향장학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도내 시·군·분부에서 올리는 2016년도 신입생 30명 가운데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이동현군 등 15명을 선발했다.

또 재학생 36명을 장학생으로 재선발함으로써 올해 총 51명의 장학생을 최종 확정하고 1년에 한 사람당 4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4학년 동안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금암2동 어울림예술단, 요양병원 민요장구 공연

금암동(동장 김세원) 어울림예술단에서는 17일 관내 한국노인요양병원을 찾아 4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래와 민요 장구가락으로 위안공연을 펼쳤다.

금암동어울림예술단 민요장구반(강사 반영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달 요양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말벗 되어드리기, 노래, 민요장구 공연 등 6년째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세원 금암동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봉사자들이 따뜻한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자생단체들과 연계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효자3동, 저소득 어르신들 이·미용 봉사활동

효자3동(동장 박병백)에서는 17일 관내 저소득층 세대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 40여명을 초대해 성심사랑 봉사단(대표 김영숙) 주관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규례씨는 "봉사활동은 백세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열매와 같은 것"이라며 "건강할 때 주변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노후에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흐뭇해했다.

박병백 효자3동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단체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심사랑 봉사단'은 나눔에 뜻을 두고 셋째주 목요일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깎기 정기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린봉 등산로 정비

인후3동(동장 최성식)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30여명은 17일 관내 기린봉 등산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은 이종로에서 시작되는 기린봉 일대 등산로를 찾아 겨우내 묵은 쓰레기와 죽은 잡초 등을 제거했다.

황승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새마을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평화2동 상가번영회, 새봄맞이 대청소

평화2동(동장 심규문)에서는 17일 상가번영회 회원 및 주민센터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는 관내 공원 및 상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주변 등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의 각종 쓰레기 및 오물 수거활동을 펼쳤다.

상가번영회 임용호 회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말쑥하고 쓰레기를 줍는 것이 참 의미있다"며 "깨끗한 평화2동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우이2동 자생단체, 이종역과 이종호수 주변 환경정비

우이2동(동장 이병권) 주민센터에서는 17일 이종역, 이종호수, 이종천 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는 우이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들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병권 우이2동장은 "자생단체 회원들 비롯한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어 다시 찾고 싶은 우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월간)	
등록번호 전주 가00016		등록번호 전주 가00016		(주)150-922 전주매일신문주주 기금회 222-488 (세노소)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시 010-9985-4118	종영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9-6999	인후3동 249-6865	김제지사 547-6865
삼천지사 255-2404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65	진안지사 433-3004	고성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65
서산지사 272-9417	고성지사 445-1157	남원지사 632-4965	정읍지사 533-3767	진안지사 445-1157	고성지사 445-1157
호주지사 010-9985-9835	익산지사 899-923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9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